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는 에코(그린)어바니즘에 따라 공생도시가 출현하며, 세계도시, 생태도시, 저탄소녹색도시, 인본도시, 흐름도시, 창조도시 등이 나타났다.

이후 2010년대에는 바이오 어바니즘으로 리질리언스의 개념이 도입되며 미래지향적 도시로 저탄소 스마트도시, 바이오필릭도시, 기후변화에 적응한 도시, 도시메타볼리즘 등이 나타나고 있다(김귀곤, 1993).

#### 나. 생태·문화도시의 출현

1960년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은 단지 및 도시 계획 분야에 위기감을 고조시켰으며, Ian McHarg의 생태적인 도시계획 담론 등 인공적 생태계와 자연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생태도시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거단지로서 생태마을이 등장하며 도시의 환경 위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지형에 따라 배치된 도로와 토속적인 건축재료, 생태정원, 우수의 활용 및 저류지 조성, 중수처리, 친환경 생활규범의 자율적 실천 등 모든 면에서 생태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시발전과정으로 인해 탄생한 생태都市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제시되어 그 개념을 보편화 하였다. 이 도시는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공생, 도시와 자연생태계를 연결하고자 하였다.

생태都市는 도시공간을 자연과 인위적으로 가까워지게 계획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도시로 그 유형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와 주택·교통·인구 등의 도시 구성요소가 상호고려된 지속가능한 도시, 전원도시, 녹색도시, 에코시티로 구분되었다.